

입학은 해도 졸업 못한다... 갈 곳이 없어서

불교계 영봉 스님 뿐 다른 지원 없어... 주민 60%가 기독교로 개종

있습니다. 개울을 건너면 양철지붕을 올린 솥대 때문에 학교를 알리는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현판 위에는 유럽연합과 일본정부가 학교건물을 짓는데 지원했음을 알리는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교사 2명과 병당 검 교무실로 쓰는 건물에 하나 그리고 고아들의 기숙사 3동이 학교를 이루는 건물의 전부입니다. 운동장은 따로 없고 정문 앞에 농구코트가 하나 있는데 그제 운동장입니다.

오후 2시. 살며시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실마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듬성듬성 피어 있는 화단은 깨끗하고 군데군데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 채소를 한 포기씩 심어 둔 것이 보입니다. 교실 가까이 가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선생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병당 검 교무실로 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선생님은 환갑이 가까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닥 나잉 선생님께 얘기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닥 나잉(That Naing) 선생님은 지난밤에 우리 숙소를 다녀갔습니다. 올해 55세인 그는 민주화 운동 시위에 가담했다가 감옥생활을 했으며 13년 전 미얀마를 탈출해 뉴포캄프로 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데 날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영봉 스님이 처음으로 뉴포캄프로 찾아왔을 때 닥 나잉 선생님이 스님을 찾아 왔었다고 합니다. 불교중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고무된 스님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울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스님, 교사들도 먹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인 즉, 불교중학교 교사들에게는 월 400바트의 월급이 책정 되어 있지만 온전하게 나올 때도 있고 절반만 나올 때도 있고 더러 거르는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영봉 스님은 이 학교 교사 11명에게 월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불교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 장면.

한 명의 월급 400바트는 한국 돈으로 대략 1만 6000원입니다. 교사 한 명의 연봉이 19만 2000원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봉 스님은 지난 3년간 불교중학교 전체 교사 11명에게 연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그렇지, 좀 안다면 ‘영봉 스님’을 ‘연봉스님’이라고 부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늘어나는 학생 대책 없는 현실

불교중학교의 학생은 남학생이 148명이고 여학생이 156명, 합해서 304명이 현재의 총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얀마 국경지역에서는 무장반군 세력과 군정이 충돌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태국으로 넘어 오는 난민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나이는 대개 10세에서 19세까지인데 부모가 전혀 없는 고아가 100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름은 중학교지만 이곳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뒤섞어 공부를 하는 듯합니다. 선생님들은 굳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학급만 소개합니다. 즉, 전체를 4개 학년으로 나누고 1년 단위로 학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로 배우는 과목은 영어, 카렌어, 미얀마어 등의 언어와 수학, 과학, 역사, 지리 그리고 불교경전이라고 소개 합니다.

“불교경전을 공부하나요?”

“아침마다 20분씩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니 그 시간에 아이들의 마음

속으로 자비와 지혜의 샘물이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영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선생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게 바랍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교 현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몫이 끝났다는 듯 수업을 마치고 들어 온 영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칸 누헤(Khan Nohe)입니다.”

젊은 영어선생님은 올해 23세이며 캄프안의 다른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작년에 불교중학교로 왔습니다. 그가 미얀마를 떠난 것은 5년 전이고, 머지않아 가족이 있는 미얀마로 갈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나요?”

“네, 특히 언어에 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어요?”

“무엇보다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힘들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난민이 늘어난다는 것이니 미얀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학급의 인원이 80명을 넘어 서는 지경이니 수업 지도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학생들은 장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갑자기 칸 누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차! 싫습니다. 너무 막막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한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졸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100명

에 이르는 고아들의 경우 이 캄프 안에서 갈 곳이 따로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캄프를 벗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학급을 조절하며 교육과정을 높여 가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서 (미얀마)상황이 좋아져서 되돌아 갈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며 젊은 선생님은 창밖을 내다 봅니다.

“그래도 한 번도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발랄한 모습을 사전에 담고 싶다고 하니 선생님은 전교생을 불러 모읍니다. 순식간에 질서정연하게 모인 학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와~ 함성을 질러줍니다. 6월의 푸른 나뭇잎 같은 손이 예쁘기만 합니다.

#어느 여학생의 아픈 기억과 희망 이야기

수업을 다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가고 학교는 조용합니다. 텅 빈 교실에서 여학생 한 명을 만납니다. 열일곱 살의 호살루에(Paw Sar Lweh). “캄프에는 언제 왔지?” “3년 됐어요.”

“미얀마에서는 어디 살았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 했지만, 결국 그녀는 고향과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토르르 토르르 굴려 냅니다.

호살루에는 미얀마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그러니까 8살 때 아버지가 병(말라리아)으로 돌아가셨고 다음해엔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홉 살 소녀 가장에게는 여섯 살의 남동생과 두 살짜리 여동생을 보호해야 할 태산 같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던 3남매는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집에서 3남매는 눈치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도 해야 했고 동생들 때문에 꾸지람도 들어야 했습니다. 천덕구러기 3남매.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아닌 경우를 몰랐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멀리 있는 학교를 걸어서라도 다니고 싶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면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도시,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가끔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마을도, 공부를 할 수 없는 현실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떠나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난민 수용소로 간다는 것이었고 그 곳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 집에서 내 입 하나라도 낼 수 있다면 떠나고 싶다.”

그렇게 결심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총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꼬박 이틀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 사흘째 되는 날 뉴포캄프로 도착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나?”

“동생들이 보고 싶지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기숙사에서 살만하?”

먹고 자는 것을 비롯해 많은 것이 불편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불편함을 견디게 한다고 대답합니다. 호살루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언젠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라 믿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하다면 그곳에 살고 싶진 않아요. 어쩌더라도 제가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동생들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위해 네가 준비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구나. 최선을 다해 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불교중학교. 다른 종교의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사와 학생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화단의 꽃들이 어여쁘고 기숙사 옆의 채소밭에 채소들도 싱싱합니다. 이제 이 캄프 안에 있는 사자를 찾아갈까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뉴포캄프로 불교중학교 정문.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원해서 설립된 학교다.

天氣福

학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